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노무현의 비전은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화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취재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총리의 말씀은 안보이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어법과 역설화법을 쓰지말고 쓰여진 대로 읽는 대통령, 약한 모습과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만 쥐고 나머지는 부처에 맡기겠습니다. 분야별 수석을 없앴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정책수석이 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자꾸 들고와서 결정을 묻습니다. 바로 결정하면 되는데 문화가 전파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컨트롤해서 무리한 것은 잡고 안하는 것은 추진시켜야 합니다. (각 부처가) 아직 확실히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무디스가 북한 핵문제로 신용등급을 낮춘다고 해서 미국 가서 고자세든 저

자세든 여러사람들을 만나 해결했습니다. 이제 국내 소비신장만 남았습니다.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조건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 인하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경제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소비보다 투자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이기기 위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국민이 걱정 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무현의 비전은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국정원을 앞세우지 않고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안보는 사회입니다.